

石油類需給과 關稅政策



金 基 仁

〈財務部 · 關稅局長〉

I. 머리말

정부는 작년 봄 초 國際原油價格下落을 계기로 油種間 價格調整과 아울러 종전까지 無關稅로 통관되어 오던 輸入原油에 대하여 5%의 관세를 징수하고, 이와 관련하여 石油製品에 대한 輸入關稅率도 대폭 개편하였다.

우리 나라는 다른 基礎資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에너지 資源賦存이 빈약하여 에너지의 海外依存度가 높다. '83년중 해외로부터 들어온 에너지 輸入代金이 70억달러에 달하여 동기간중 수출하여 번 外貨 245억달러의 거의 30% 정도를 에너지 수입을 위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원貨로 환산하면, 대략 5조 5천억원으로 국민 1인당 연간 15만원을 외국에 지불한 셈이다. 따라서 基礎資源으로서 산업상 비중뿐만 아니라, 國際收支面에서도 輸入에너지에 대한 關稅政策은 우리 경제운용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래 輸入物品에 대한 關稅賦課는 나라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징수하는 財政關稅가 주된 기능이었으나, 산업혁

명 이후 국내 산업육성 및 보호문제와 관련하여 수입관세의 産業政策的 機能에 대한 인식이 싹트기 시작하였으며, 오늘 날에 와서는 재정조달목적 못지 않게 관세의 산업정책기능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一國의 관세정책수립 및 운용에 있어서 兩機能의 調和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느냐 하는 문제가 關稅政策立案者들의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가담으로 금번 石油類에 대한 關稅改編 背景과 향후 이들 물품에 대한 關稅運用方向은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종합적인 에너지政策과의 連繫 아래에서 理解되고 設定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II. 에너지供給의 海外依存度 심화

우리 나라는 에너지資源이 극히 빈약한 나라이다. 그러나 세계에서 우리 나라만이 에너지資源賦存이 貧弱한 것은 아니다. OPEC產油國 · 美國 · 소련 · 캐나다등 일부 소수국가를 제외한 세계각국도 거의 우리와 비슷한 입장에 놓여 있다.

문제는 우리 나라의 경우 에너지供給의 海外依存度가 他國에 비하여 훨씬 深化되어가고 있다는

점에 있다.

실제로 77년~81년 제 4 차 5 개년계획기간중 GNP는 연평균 5.3% 증가한 반면, 동기간중 에너지 소비는 연평균 7.4%나 증가하여 에너지소비증가율이 항상 GNP성장률을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에너지 1國內供給은 거의 한계에 달하여 에너지 공급의 해외의존이 날로 심각하여져갈 전망이다. 에너지 供給의 해외의존도심화현상이 세계적 추세이기는 하지만, 우리 경우의 그 정도가 보다 심각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하겠다.

우리의 경우 에너지공급의 해외의존도 심화현상은 다음 세가지 요인에 基因한다고 본다.

첫째, 우리 나라 産業構造가 에너지 多消費型으로서 경제의 고도 성장에 따라 급속도로 에너지 需要가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에너지 需要의 所得(GNP) 彈性值를 살펴 보면 79년의 경우 1.88로서 GNP 성장속도보다 에너지 수요증대속도가 1.88배나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외국의 경우 에너지 수요증대속도가 GNP 성장속도보다 낮아 에너지 需要의 所得彈性值가 1 미만인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에너지需要의 所得(GNP) 彈性性 國際比較(1979년)

韓國	日本	프랑스	美國
1.88	0.80	0.59	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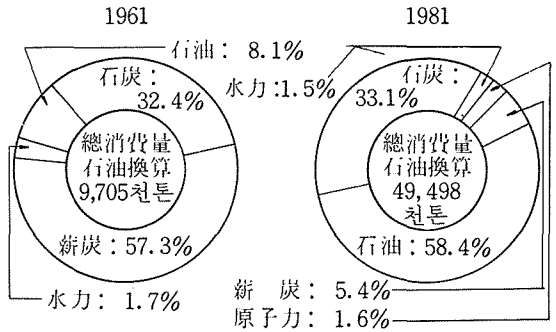
우리의 경우 에너지수요의 소득탄성치가 높은 원인은 근본적으로 그 동안 重化學工業을 중심으로 한 經濟開發施策에 기인하였다고 본다. 제 4 차 5 개년 계획 기간중 중화학공업에 대한 집중투자는 어쩔수 없이 우리의 産業構造를 에너지 多消費型으로 변화시켰으며, 특히 素材型産業에 대한 육성 정책은 에너지 소비량을 加重시키는 要因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에너지需要 패턴의 構造的 矛盾에 기인한다.

우리 나라 제조업 부문을 보면, 에너지 수요에 있어서 에너지源간의 代替性이 극히 낮은 硬直의 인 構造를 나타내고 있다. 에너지 수요에 있어서 石油가 차지하는 비중이 두 차례의 石油波動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바, 에너지 需要構成에 있어서 石油의 占有比를 보면, 1961년의 경

우 8.1%에 불과하던 것이 1981년에는 총 에너지 수요의 58.4%에 달하였다.

*우리나라 에너지 消費構造



세째, 代替에너지 開發에 있어 우리 나라는 선진국과는 달리 資本 및 技術의 부족으로 太陽熱 등 非消耗性 再生可能한 代替에너지源 開發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들은 석탄 및 가스등 石油代替 에너지資源의 집중개발은 물론, 21세기를 내다보고 非消耗性 에너지源의 實用化를 위한 研究開發投資를 擴大하는 한편, 이러한 新에너지時代의 到來에 대비한 經濟社會 構造의 調整作業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공급에 있어서 해외의존도, 특히 石油依存度 深化는 국제에너지 정세가 악화될 경우, 우리 경제의 안정성장기반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대외관계에 있어 에너지資源 保有에 대한 국제적 입장을 불리하게 할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하겠다.

Ⅲ. 石油類 需給구조와 問題點

현행 우리나라 油價制度는 정부가 결정·고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고시제도는 獨寡占 아래에서 價格談合(不當引上)을 방지하고, 經濟性을 배제한 原油處理를 유도함으로써 油種間 需給安定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첫째, 民間企業의 損益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게 됨으로써 政府依存的인 企業體質을 助長하게 되어 경쟁적인 기업경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能率向上이나 刷新努力이 자칫 소홀해지기 쉽고,

둘째, 정부가 직접 가격을 결정하게 됨으로써 價格調整要因發生과 價格調整時期 사이에 time-lag가 발생하여 油價調整時마다 유가조정요인의 累積作用으로 일시에 油價의 大幅調整이 불가피하게 되어 국내물가에 큰 波及을 주게 되며,

세째, 油種間 價格調整時에 다른 政策目標가 介人하게 됨으로써 油種間 價格構造 歪曲現象이 발생하여 원활한 석유류 수급을 저해하는 경우도 생긴다. 실제로 現行 油價體系를 보면, 석유화학공업의 기초원료인 나프타·경유를 국제가격수준으로 低價策定함으로써 그 부담이 산업용 연료인 B-C油에 전가되고 있다. 기업입장에서 보면 비싸게 팔 수 있는 B-C油 생산이 유리하게 되어 B-C油는 供給過剩이 되는 반면 값싼 나프타나 경유는 물량부족 및 輸入忌避現象이 야기되고 高級油인 나프타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례마저 발생되고 있다. 더구나 原油(관세 5%)와 나프타(관세 2%)간의 逆關稅現象으로 國內供給物量 不足에도 불구하고 국산나프타를 수출하는 奇現象을 볼 수 있다. 즉, 나프타의 國內供給義務 物量을 이행하기 위하여 나프타를 수입하여 국내 공급하고 생산되는 나프타를 수출할 경우 나프타제조에 사용된 輸入原油分에 대한 關稅納付額을 還給받을 수 있기 때문에 企業立場에서 보면, 原油와 나프타間の 稅率隔差(3%)만큼 國內販賣보다 輸出하는 경우가 이롭게 된다. 이러한 수출은 國民經濟的立場에서 보면, 外貨獲得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배럴당 29달러짜리 원유를 들여와서 나프타를 제조하여 배럴당 29달러에 팔기 때문), 나프타의 國內需給不均衡만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수출형태라고 볼 수는 없다.

IV. 에너지需給과 政策方向

지금까지 우리 나라 主要에너지源인 石油類의 需給構造上 문제점과 이와 관련하여 石油類 價格體系上 矛盾에 대하여 一瞥하였다. 우리 경제를 80년대말까지 先進隊列에 끌어올려 놓기 위해서는 持續的인 經濟成長이 필요하다. 일정률의 경제성장을 持續的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에 所費되는 에너지 需要를 蹉跎없이 充足시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다. 위에서 살펴 본 에너지需

給上 問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政策方向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産業構造를 에너지 多消費型에서 에너지節約型으로 轉換시켜 나가야 하겠다.

둘째, 에너지節約型 産業構造와 관련하여 에너지節約과 에너지 利用合理化를 위한 노력을 傾注하여야 한다. 損失에너지 比率를 가능한 줄여 현재 선진국 수준에 훨씬 못미치는 熱效率性을 提高시켜 나가야 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에너지 수입을 위한 外貨도 절감되고, 기업의 경쟁력도 배양되어 나갈 것이다.

세째, 에너지 供給源을 多元化하여 에너지 供給構造를 改善하여 나가야 하겠다. 에너지 공급면에서 脫石油化를 보다 촉진시키고, 석탄·가스 등 石油代替에너지의 비중을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代替에너지 사용의 보다 적극적 誘導을 위해 사회·경제적으로 生活樣式 및 生産패턴의 再調整作業도 꾸준히 併行되어야 하겠다.

네째, 海外資源開發輸入을 적극 추진하여 나가야 하겠다. 國內賦存資源의 빈곤으로 우리 나라는 해외자원예의 의존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러나 海外資源을 직접 輸入하기 보다는 開發輸入을 확대하는 것이 所要에너지源의 自給能力도 확대되고 國際에너지 危機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다섯째, 價格構造의 人爲的인 歪曲으로 인한 油種間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의 價格統制體制가 市場機能에 의한 自由競爭 體制로 移行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V. 石油類 需給과 關稅政策

금번 石油類에 대한 關稅改編背景은 위와 같은 長期的에너지 需給政策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關稅의 財政目的보다는 産業政策的 機能強化에 力點을 두어 에너지節約型 産業基盤 構築, 에너지利用合理化 및 代替에너지 開發投資誘導, 에너지源의 원활한 수급지원을 基本 政策方向으로 설정하였다.

부문별로 改編背景 및 調整內譯을 보면,

첫째, 原油에 대하여 국제원유가격 하락을 계기로 작년 4월 18일부터 5%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게 되었다(중전 無稅).

당시 國際原油價格下落으로 절약되는 導人費用을 전부 國內油價引下에 사용하여 高油價時代를 堪耐한 苦痛의 對価로 지불되어야 한다는 名分論과, 國內유가 인하로 國內物價 下落을 유도하여 經濟安定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國內유가의 全般的引下는 석유소비를 조장하고 에너지節約型 産業構造로의 이행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고, 물가의 下方硬直性 때문에 國內유가 인하가 직접적으로 國內물가 하락으로 연결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國際原油價格引下分을 基金 및 關稅로 흡수하여 에너지절약 노력을 지속적으로 연결시키고 基金徵收 및 관세부과로 마련된 財源은 代替에너지개발, 에너지 利用合理化事業 및 産業競爭力 提高를 위한 投資財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國民경제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국제에너지價格 反騰時에 기금 또는 관세의 탄력적 운용으로 價格緩衝役割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장기적인 물가안정 및 에너지 수급 원활에 기여한다는 것이 당시 정부의 입장이고,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대체로 우리와 유사한 對策을 講究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關稅와 石油基金

이리하여 국제원유 가격하락(32\$/B→29\$/B)으로 인한 導人原油複合單價 下落分 配럴당 4.5달러 중에서 30%에 해당하는 配럴당 1.36달러는 國內油價引下(調整率: 4.76% 인하)에 사용하고, 나머지 70%를 安定基金으로 配럴당 1.72달러를 징수하고, 關稅로 配럴당 1.45달러(5%)를 부과하게 되었다.

이렇게 조성된 石油 安定基金은 83년중 총 1,910억 원에 이르러, 그중 천억 원은 韓國電力의 國民投資基金 融資를 代替하는데 사용되었다. 韓國電力 融資代替로 인하여 여유가 생긴 國民投資 기금은 水資源開發事業에 420억 원, 滯貨無煙炭 備蓄에 252억 원, 에너지절약 및 이용합리화사업에 238억 원, 延拂輸出支援에 400억 원, 國產機械購入資金 支援에 300억 원, 電子 및 半導體産業支援에 200억 원, 그리고 나머지 100억 원은 重化學工業支援

을 위해 사용되었다.

한편 財政部門에서는 原油關係賦課로 財政收入이 확보됨으로써 他基礎工業用 原資材의 關稅率引下가 가능하게 되어 전반적 産業 경쟁력제고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게 되었다.

工業用原資材에 대한 關稅徵收은 83년도중 4,276억 원으로 平均 徵收稅率이 17.6%나 되어 그동안 業界負擔이 무거웠을 뿐더러, 물가에 대한 압박도 컸던 것이 사실이다.

둘째, 液化天然가스(LNG)의 關稅率을 중전 10%에서 5%로 인하조정하였다. 天然ガ스를 原油와 같은 次元의 物品으로 취급함으로써 석유의존적 수요패턴을 시정하고, 에너지 供給源의 多樣化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다.

LNG는 可採年數가 석유에 비해 비교적 길고, 供給契約 자체가 장기적일 뿐만 아니라, 석유에 비해 지역적으로 賦存이 산재해 있어 에너지源의 多元化 및 물량의 장기안정 確保에 유리할 뿐더러, 無公害 煙料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도입할 수 있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석유화학공업의 기초원료인 나프타의 代替物로서 나프타 보다 저렴하여 석유화학공업제품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외국처럼 天然가스 베이스로의 轉換이 模索되어야 할 것이다.

關稅의 인상

세제, 휘발유·燈油 등 원유를 精製하여 생산되는 石油 1次製品에 대해서는 石油消費 節約型 經濟構造를 유도하고 석탄가스 등 類似燃料와의 稅率均衡을 위하여 중전 5%의 관세율을 10%로 인상하였다.

다만, 産業用 燃料인 B-C油 등 重質油와 輕油에 대해서는 제조업의 燃料費用負擔 加重으로 인한 價格競爭力弱화를 우려하여 중전과 같이, 5%의 세율수준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네째, 石油化學工業의 基礎原料인 나프타의 경우, B-C油·輕油 등 産業用石油製品과의 稅率均衡을 위하여 基本稅率을 5%로 책정하였으나, 輸出比重이 큰 石油化學製品의 對外競爭力을 고려하여 중전에 만성적으로 운용되어 왔던 割當稅率 2%를 暫定稅率 2%로 現實化 하였다.

우리 나라 석유화학공업은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產油國 및 선진국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값비싼 나프타를 원료로 하기 때문에 原料費用面에서 構造的으로 脆弱하다. 여기에 수입나프타에 대한 높은 관세부과는 업계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天然가스 베이스로의 施設改替가 이루어지고 技術開發 및 原價節減努力결과 競爭力이 확보되어 基本稅率 5%의 關稅負擔을 受容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를 때까지 나프타에 대한 低率의 暫定關稅 운용이 불가피한 실정이라 하겠다.

그밖에 麗川團地의 나프타需給不均衡問題와 관련하여 현재와 같은 生産多元體制 아래서는 각 기업마다에 收益保障이 불가피하게 되어 製品의 生産原價를 압박하게 되고 製品間 價格 및 需給調整이 용이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선진국이나 蔚山 단지의 경우처럼 精油工場과 나프타分解工場을 單一會社에서 運營하는 方案을 검토해 봄직하다.

* 石油類 關稅率 改編內訳

	從前(83)	改編(84-88)	비 고
原 油	5%(暫定無稅)	5%	에너지供給의 多元化
液化天然가스	10%	5%	
나 프 타	5%	5%(잠정2%)	石油化学工業 基礎原料
重油(B-C油)	5%	5%	産業用燃料
輕 油	5%	5%	
휘 발 유	5%	10%	石油消費節約
灯 油	5%	10%	

이밖에도 에너지 長期需給政策 支援을 목적으로 에너지産業 施設資材 導入에 대하여 關稅減免 내지 關稅分割納付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바,

첫째, 重質油分解(cracking) 施設材 導入에 대해 關稅減免혜택을 85년말까지 연장함으로써 重質油와 輕質油間의 需給不均衡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게 하였고,

둘째, 太陽熱 利用器機 제조용 機資材를 수입하는 경우 實行關稅率의 65% 내지 70%까지 關稅減免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太陽에너지 開發 投資誘引을 부여하였으며,

셋째, 에너지節約用 施設材 導入時에 關稅를 分割納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이들 施設材導入에 따른 자금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있다.

*에너지産業 施設材導入에 대한 關稅減免 및 分割納付制度

區 分	支 援 內 容	備 考
重質油分解 (cracking)施設材	—輕減率: 84 85 50% 45%	●輕減期間: 85. 12. 31까지
太陽熱利用器機 製造用 機資材	—輕減率 ●實行關稅率20% 以下物品: 65% ●實行關稅率20% 超過物品: 70%	●輕減物品: 吸熱 板 등 5개物品
에너지節約用 施設材	—分割納付 ●期間: 5年以内	●關稅庁長이期間 決定

VI. 맺는 말

모든 政策手段이 다 그러하듯 關稅運用 한가지 만 가지고 에너지 需給問題를 根本的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에너지 수급과 관련되는 餘他 政策手段들도 유기적으로 連繫되어 併行推進되어야 함은 물론, 國民側에서 政府政策을 信賴하고 자발적으로 따라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다.

石油 한방울이라도 아껴쓰는 節約風土가 國民들 사이에 뿌리를 내려야 하고, 기업측에서도 에너지 效率性提高, 石油依存的 生産組織 脫皮 등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相互理解 및 協力體系構築이 필요하다. 정부·기업·국민, 三者가 合心하여 노력할 때 에너지 危機가 닥치더라도 持續的인 安定成長에 필요한 에너지 需要를 큰 어려움 없이 供給할 수 있게 된다고 確信한다.*

부정 · 부패 · 인플레이心理를 追放하자